

2015 장성군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기 간 : 2015. 3. 20.(금) ~ 3. 28.(토), 9일
- 연 수 국 : 터키
- 연수목적 : 기관방문 및 관광인프라 등 선진지 견학
- 연수인원 : 8명(의원 5, 수행공무원 3)



장 성 군 의 회
JANGSEONG-GUN COUNCIL

목 차

1. 연 수 개 요

1. 연 수 목 적	2
2. 연 수 기 간	2
3. 연 수 자 명 단	2
4. 대 상 국 가	3

2. 연 수 내 용

1. 주 요 일 정	5
------------------	---

3. 특이사항 및 연수후기

1. 특 이 사 항	20
2. 연 수 후 기	22

공무국외여행보고서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터키국외연수를 통해 문화관광, 복지, 환경 및 자치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직접 비교·견학함으로써 우리군 발전을 도모
- 비교시찰을 통해 의원의 전문을 넓히고 우수사례 및 새로운 정보를 취합하여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 연수기간 : 2015. 3. 20.(금) ~ 28.(토), 9일간

○ 연수자 명단 : 8명

번호	실과소	연수 대상자		성별	비고
		직위(직급)	성명		
계		8명			
1	의회사무과	의장	김○○	남	
2	〃	부의장	차○○	〃	
3	〃	의원	김○○	〃	
4	〃	〃	김○○	〃	
5	〃	〃	고○○	〃	
6	〃	전문위원	이○○	〃	
7	〃	주무관	유○○	〃	
8	〃	〃	조○○	〃	

○ 대상국가 : 터키

- 특징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다넬즈 해협을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
- 터키는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NATO 회원국이며, 여타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정교분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
- 최근 터키는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 인접성 등 유망시장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post-BRICs군에 빠짐없이 언급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2013년 5월1일부터 FTA 발효

- 위치도



- 일반현황

국 명	터키 공화국(Republic of Turkey)
면 적	783.562km ² (37위, 남한의 약 8배)
위 치	북위 35°-42° - 유럽, 아시아, 중동 - 접경국 : 시리아, 이란, 이라크, 불가리아, 그리스,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국경선: 2,875km) - 해안선 :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 지중해, 2개 해협(8,333km)
인 구	80,694,485명(18위, 2013년 기준)
민족구성	터키인 (80%), 쿠르드족(20%), 기타
기 후	내륙지방은 대륙성 기후이며 해안지방은 해양성 기후
수 도	앙카라 (인구 : 약 455만명)
언 어	터키어, 쿠르드어, 아랍어
종 교	전 국민의 98% 이슬람교(헌법상 정치와 종교 분리)
국 경 일	10.29. (터키공화국 선포일)
정부형태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
국가원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의 회	단원제(임기 4년, 의석 550석)
주요정당	정의개발당(AKP), 공화인민당(CHP), 민족주의행동당(MHP), 평화민주당(BDP)
GDP	8,133억 달러(세계 18위)
1인당 GDP	10,518 달러(세계 71위)
대외무역	수출 1,525억 달러, 수입 2,365억 달러(2012년 기준)
경제성장률	2.8%(2012년 기준),
환 율	1US\$=약 1.79TL 터키리라(2012년 기준)
물가상승율	8.5%(2010년 기준)
실 업 율	9.2%(2012년 기준)
국제기구 가입	UN, ILO, FAO, UNESCO, WHO, IFC, IDA, IMF, OECD, UPU, NATO, WTO 등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기원전 2000년, 중앙아시아 동북부에서 기원하였다고 하며, 터키의 조상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훈족으로, 기원전 220년에 수립된 터키의 테오만 야부그 왕국을 흉노라 불림
- 한국어와 같이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터키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구려와 돌궐의 동맹관계 및 한국전쟁 당시 미국,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참전용사를 파병하였으며 한국인을 “코렐리(Koreli)”라 부르며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는 우방국
- 1957년 양국수교이후 UN, IAEA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해 왔으며, 특히, 에브렌 대통령의 공식 방한(1982. 12. 20. ~ 23.) 및 외잘 총리의 공식 방한(1986. 11. 4. ~ 7.)이 있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4월 15일 ~ 17일, 4일간의 일정으로 터키를 공식 방문하였음
- 양국수교이후 우리나라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의 공식방문으로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특별한 관심 표명이며, 전통적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경제, 통상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됨

○ 방문기관 : 이스탄불 시실리구청, 데니즐리시청

2. 연수내용

○ 주요 일정

- 1일차 : 인천 → 터키 이스탄불

터키 여행 첫날은 대부분은 차량과 비행기에서, 그리고 잠을 자며 보내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출발 당일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싣고 공항도착 후 비행기 탑승 전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는 공항 사정으로 예정시간(14:25)보다 한시간정도 지연되어 출발(15:30)하였고, 이스탄불에 도착해 숙소
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21시 30분(한국 : 04시 30분)이 조금
못된 시간이었다. 장시간의 이동(21시간)에 지친 우리였지만 모두 같
은 방에 모여 여행 첫날의 간단한 소회를 풀고 대부분의 시간을 버스
와 비행기에서 보냈고, 한국에서는 잠자리에 들 시간인지라 모두 일
찍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터키국외연수동안 이동시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00km가 넘는 기나긴 여정의 첫날밤이 비로소 마무리
되었다.

- 2일차 : 보스포러스 해협 → 돌마바흐체 → 블루모스크

아침부터 창밖에는 달갑지 않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 또한 터키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나 쌀쌀한 날씨와 다소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었다. 한국인 가이드의 말을
빌자면 터키 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등 종잡을 수 없다고
하여 혹시나 비가 그치길 기다렸으나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
다. 꽤 강한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쓴 사람들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 특이했으며, 가이드에게 그 이유를 물었으나 딱히 정
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하였다. 이는 아마도 이곳의 변덕쟁이 날씨탓
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정은 오전에 보스포러스 해협과 지
중해의 베르사이유 궁전이라 불리는 돌마바흐체 궁전을 둘러보고 점
심식사 후 앙카라로 이동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어제 도착한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끼고 위치하였으며 2,000년이 훨씬 넘는 역사에 걸맞게 동서양의 문화와 상업의 교류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세계를 지배한 3대 강국인 로마, 비잔틴, 오스만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이곳은 오늘날까지도 도시 곳곳에 과거 번영의 흔적들을 보존해놓고 있음으로써 생생한 역사의 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4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로서의 면모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고, 또한 서양과 동양의 조화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절묘한 도시라고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찾는 터키 관광의 요체이기도 하다.

이스탄불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정학적 위치의 영향인데 국외연수 중 첫 번째로 방문한 보스포러스 해협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 보스포러스 해협은 흑해와 마르마라 해를 잇고,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터키의 해협으로 흑해의 자원들이 서방으로 나가는 경제적 지름길로 길이는 30km이며, 폭은 가장 좁은 곳이 750m이며 깊이는 36 ~ 120 m사이이다. 지리적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두고 유럽과 아시아로 나뉘지기 때문에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유일한 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보스포러스 해협을 두고 동쪽의 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 서쪽의 유럽지역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된다. 유적지가 모여 있는 곳은 구시가지인 술탄 아흐멧(블루모스크) 지역은 유럽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군사적인 요충지 역할을 하였고, 18세기 이후에는 다르다넬스 해협과 함께 해협의 항행권(航行權)을 둘러싼 '해협문제'로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1973년에 완성된 보스포러스 해협 횡단의 유

라시아 대교(大橋:일명 보스포루스교)가 있으며 해협을 횡단하는 두 개의 다리가 건설되어 있다. 현재는 바다 아래로 기차 터널을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의 SK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2층 구조의 자동차 도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5.4Km의 거리이며 2016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터키를 공식방문 하였을 때 배를 타고 이 해협을 둘러보았듯 우리도 한 시간 남짓 배를 타고 이동하며 보스포루스 해협을 둘러보며 동서양의 문화를 동시에 접할 수 있었으나 비가 내려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배안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보스포루스 해협】



【돌마바흐체 궁전 입구】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배에서 내린 우리는 돌마바흐체 궁전을 찾았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배를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며 볼 수 있었던 곳으로 바다를 메우고 궁전을 지은 까닭에 돌마바흐체(가득 채운 정원)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내부에 들어서면서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델로 하였는데, 배를 타고 지날 때 본 것과는 다르게 궁전의 내부가

굉장히 크고 화려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석조 건축물로 세워진 이 궁전은 원래는 목조 건물이었으나, 1814년의 대화재로 대부분 불타고 31대 술탄인 압둘마지드에 의해서 1856년에 재건되었고, 1843년 착공하여 1859년에 완공하였다. 유럽에서 보내온 수많은 현상품과 금 14톤, 은 40톤을 사용하여 호화롭게 꾸며진 사방의 벽들을 보면 당시 오스만 제국의 위세를 짐작케 하였다. 오스만 제국 시대 후기 6명의 술탄이 일부 사용하였으며 터키의 국부라 불리는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역시 이곳을 관저로 사용하였다가, 1938년 11월 10일 오전 9시 5분에 집무실에서 사망하였다. 이를 기리기 위하여 집무실과 침실의 모든 시계가 9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행객들이 줄을 서 기다리며 입장하였으며 날이 좋아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유럽 등지에서 이곳을 찾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니 그 유명세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돌마바흐체 궁전】



【돌마바흐체 궁전】

다음으로 찾은 행선지는 블루 모스크(술탄 아흐멧)였다. 블루 모스크는 당초 연수의 마지막 날(금요일)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요일은 예배가 있는 날로 입장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일정을 수정하게 되었다. 블루모스크는 이스탄불에 있는 대표적인 모스크¹⁾로, 세계문화유

산인 이스탄불 역사지구의 유서 깊은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오스만 제국의 제14대 술탄 아흐멧 1세의 명령에 따라 1609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7년이란 공사기간 끝에 1616년에 완성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 불리며, 안쪽 벽면을 온통 뒤덮은 푸른빛을 띠는 도자기 타일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는 애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블루모스크】



【블루모스크】

역시나 이곳도 많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밖에서 줄을 서고 기다려 입장을 하게 되었다. 현재에도 사용되는 이슬람 사원인 탓인지 입장을 위한 복장에 제한이 있었는데 남자, 여자 모두 반바지는 금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머리와 얼굴을 가린 후 입장이 가능하며 다행히 사원 앞에서는 이들을 위한 복장도 준비되어 있었다. 실제로 예배를 위해서도 활용되며 관광을 위한 명소로도 활용된다는 점이 이채로웠다. 또 다른 특색은 일반적으로 술탄이 건립한 모스크의 첨탑은 보통 4개이나 블루모스크의 첨탑은 6개라는 점인데, 당시 술탄이 황금으로 된 첨탑을 건축하길 원하였는데 건축가 입장에서는 황금으로 짓는 것이 불가능하여 궁여지책으로 “황금”의 터키어 발음이 숫자 “6”과 비슷하여 첨탑을 6개로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블

1) 이슬람 사원으로 예배와 집회의 장소로 이용된다. 터키에는 이러한 사원이 8만 2천여개가 존재한다.

루모스크는 외관모습 뿐 화려한 벽면, 스테인드글라스, 모자이크 등 내부 또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고 성소피아 성당을 본떠서 지었다고 하는데 블루모스크가 이 정도라면 성소피아 성당은 어느 정도일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간단히 점심식사 후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이동을 시작하였는데 시내를 벗어나는데 3시간이나 걸리는 등 총 9시간이 걸려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 도착하였다. 넓은 국가 면적으로 터키인들은 장시간 이동에 익숙하다는 가이드의 말처럼 지독한 교통체증을 당연시 하였는데, 우리로서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연수중에 차츰 적응하게 되었다. 흔히들 착각하기 쉬우나 앙카라가 터키의 수도이며 인구는 515만명으로 이스탄불에 이어 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 3일차 : 한국공원 → 지하도시 → 카파도키아

한국공원은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이 있는 곳으로 서울과 앙카라가 자매결연을 맺고 한국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1973년에 세워졌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770명의 터키군인들을 기리고 있었다. 너무 일찍 방문한 탓인지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고 희생한 그들을 생각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묵념을 하고 한국공원 앞 도로변을 청소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한국공원이 앞으로 터키와 한국간의 우정의 산물로서 존재하며 양국이 우호 발전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목적지인 카파도키아로 향하였다.



【한국공원】



【한국공원】

“진작 여기에 와봤더라면 굳이 달에 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라는 ‘닐 암스트롱’의 말처럼 카파도키아는 지구안의 또 다른 행성이라 불리며 스머프 마을에 영감을 주었고 유명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스타워즈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곳이다. 버섯모양의 기암괴석으로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카파도키아를 더욱 경이롭게 하는 또 한가지는 최대 3만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지하 도시였다. 형성시기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본격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의 박해를 피해 이곳에 들어와 교육기관과 교회, 와인 저장고 등을 축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로 추측된다. 작은 규모에서부터 거대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총 40여개에 달하는 거주지가 발굴되었으나 현재는 소수만이 공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 중 하나가 네브쉐히르에서 29km떨어진 곳에 위치한 데린구유 지하도시인데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 데린구유는 1965년에 처음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으나 실제로 관람할 수 있는 구역은 총 면적의 10%정도였다. 지하 도시는 총 깊이가 55m에 달하는 8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과 2층에는 마구간과 포도주 압착기, 돌로 만든 두개의 긴 탁자가 놓여져 있는 식당 혹은 교실이 위

치하고 있고 3, 4층에는 거주지와 교회, 병기고, 터널이 있다. 십자가 모양의 교회, 지하 감옥 및 묘지는 지하층에 위치해 있다. 마치 개미 집처럼 미로로 얽혀있는 좁은 통로 곳곳은 무너져 내린 곳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내부의 환기시설도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었다.



【지하도시】



【카파도키아】

- 4일차 : 카파도키아 → 콘야 → 안탈라

카파도키아에서 콘야, 콘야에서 또다시 안탈라라는 도시로 이동하며 하루를 보냈다. 일정은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의 창시자인 매블라나의 무덤과 사원을 거쳐 터키의 알프스라 불리는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 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콘야는 이슬람 신비주의 교파인 매블라나 교단의 발생지로 이슬람 종교의 색채가 가장 강한 곳이었으나 우리는 일정상 무덤과 사원을 직접 둘러보지는 못하고 차창 밖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고 하루 종일 거의 차량이동을 했지만, 차창 밖의 이국적인 풍경에 빠져들다 보니 어느새 안탈라라는 곳에 이르렀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평야 그리고 저 멀리에 보이는 높지 않은 산들을 지나 흡사 알프스와 같은 타우르스 산맥을 오르고 내리는 동안은 차

량에서 내리지 않아도 한국을 떠나 먼 이국땅에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종일의 이동시간이 지겹지 않음은 국외연수동안 하나라도 더 보고 듣고 돌아가려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 덕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터키에 있는 매순간 순간이 새롭고 보고 듣고 배우는 즐겁고 설레는 경험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 5일차 : 안탈라 → 파묵칼레

드디어 도착한 안탈라는 해양 휴양도시였다.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와 안탈라 광장에 도착하여 구 시가지를 지나 항구에서 유람선을 타고 지중해를 둘러볼 수 있었다. 안탈라는 여러 시대에 걸쳐 세워지거나 증축된 성벽 등 안탈라 자체가 갖는 고대 유적지로서의 가치에, 일종의 구도심 재래시장이지만 깨끗이 정비된 골목길을 따라 빼곡히 입점한 운치 있는 유럽풍의 식당, 찻집, 구도심 근교에 위치한 잘 발달된 현대식 상권, 아름다운 해안선과 이를 둘러볼 수 있는 유람선, 항구 등이 함께 어울려 세계적인 휴양지로 거듭난 곳이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정비된 도시계획의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오후는 “목화의 성”이라 불리는 파묵칼레로 향하였다. 파묵칼레는 하얀색의 풍부한 석회질과 석회성분이 포함된 물이 온천수로 나왔다가 석회성분이 지표면에서 굳어 만들어진 자연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으로 멀리서 보면 마치 눈이 쌓여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만큼 새하얀 석회들이 두텁게 산을 덮고 있어 이곳에 흘러내린 수많은 세월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파묵칼레에서 세계문화유산인 고대도시 히에라폴리스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 기원전 190년 페르가몬의 왕조였

던 유메네스 2세에 의해 만들어져 2, 3세기에 가장 번영하였으며 무려 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원형극장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안탈라 항구】



【히에라폴리스 원형극장】

- 6일차 : 파묵칼레 → 보드룸

데니즐리시의 문화유산관광과를 방문하여 데니즐리시의 문화관광 정책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은 “터키는 수많은 문화유산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승 발전시키고 홍보해 나가고 있는지?” 였다. 짧은 시간으로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세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오랜 세월이 빚어낸 자연자원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문화유산이다. 참으로 축복받은 땅이 아닐 수 없다. 자연 그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가득하고 거기에 더하여 수많은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치는 동안 만들어진 건축물 등 유적지는 터키문화관광의 원동력이었다. 둘째,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였다. 이 지역의 축제는 1년에 6차례 열리는데 독일이나 브라질의 축제만큼 세계적으로 이름난 축제는 아니지만 국내외의 관광객이 몰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며 첫 번째인 문화유산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아직은 농업 등이 주요산업인 터키에서 문화관광 관련한 인적자원을 교육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 음악, 연극 등 문화를 발전시켜 기존의 문화자원에 접목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었다. 터키와 우리 군의 규모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상황은 비슷한 듯 보인다. 기존의 문화자원과, 지역축제,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육성이 바로 미래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문화유산관광과를 방문한 후에는 보드룸으로 향하였다. 보드룸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마우솔로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마우솔로스는 자신의 이름을 길이 남기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완성되기 전에 죽고 말았는데 그 뒤 왕위를 이은 그의 누이이자 아내인 아르테미시아가 계속 진행하였고 아르테미시아도 역시 사망한 다음인 BC 350년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쉽게도 현재는 거의 폐허 상태로 남아 있고, 유적의 일부만이 런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며, 도시 전체가 흰색 페인트칠을 한 건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법적으로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지만 지역민들이 스스로 건물들을 흰색으로 도색하고 관리한다고 한다. 지역민들이 지역의 특색을 알고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라 하겠다. 역사적인 명성 외에 에게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아름다운 바다와 따듯

한 햇살 때문에 연중 유럽 각지에서 일광욕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었으나 아직 본격적인 휴가철이 아닌 탓인지 조용하고 한가로운 작은 바닷가 항구의 모습이었다.



【데니즐리시 방문】



【보드룸】

- 7일차 : 보드룸 → 에페소 → 이스탄불

에페소는 역사와 종교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도시였다. BC 20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진 이 도시는 고대 세계7대불가사의인 아르테미스 신전 뿐 아니라 셀수스 도서관, 하드리아누스 신전 등과 마리아의 집과 요한의 교회와 무덤이 남아 있는 곳으로 가도 가도 끝도 없이 나오는 유적지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에페소 유적지는 일종의 고대 계획도시로 규모가 방대하여 그냥 지나치며 둘러보는데도 하루가 꼬박 걸릴 것 같았다. 지진이나 세월에 의해 유적들이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정말 인상적인 건축물들이 많았다. 셀수스 도서관과 하드리아누스 신전, 대형 원형극장 등은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고대 에페소의 발전된 건축 기술, 예술성 등 그들의 찬란한 문명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유적지 곳곳에는 도면과 함께 안내판과 음성안내 등이 가능하여 유물을 찾는 여행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셀수스 도서관】



【원형극장】

- 8일차 : 이스탄불(시실리 구청, 성 소피아 성당) → 인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길기만 할 줄 알았던 연수의 마지막 일정은 연수를 시작했던 이스탄불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에페소를 떠나 이즈미르에서 터키 국내선을 이용하여 이스탄불로 돌아왔다. 터키의 도시에 대해서는 이스탄불만 알고 있는 터라 둘째날 너무 급하게 떠나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그 아쉬움을 알기나 하듯 다시 이스탄불을 찾아 이스탄불 시실리구청의 문화관광과 방문을 시작으로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다.

시실리 구청에서도 역시나 문화관광 관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터키의 의회제도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전체적인 틀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지역별로 관내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었다. 고대 유적지가 많은 나라답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연극과 같은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 등을 통한 홍보 그 자체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문화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이 문화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터키의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법에서 정한 권한과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과 같은 정책개발과 정책의 타당성을 논의 한다고 한다. 또한 예전 우리와 같이 별다른 급여 없이 월 1 ~ 4회의 회의수당만 받고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집행부를 견제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인정과 의원 겸직 금지 등 의정 발전을 위한 제도적이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터키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지방 자치는 아직 요원한 듯 보였다.



【이stanbul 시실리구청 방문】



【이stanbul 시실리 구청 방문】

점심식사 후에는 성소피아 성당을 찾았는데 성당 본당의 넓이는 75m * 70m로 7,570㎡에 달하고, 천장 높이는 55.6m, 돔의 지름은 33m에 달하여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높이로, 40개의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구조는 터키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모스크와 얼핏 비슷해 보였으나 아니러니 하게도 처음은 기독교를 위한 건축물로 시작되었다.

비잔틴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공인하고 이곳에 거하기

로 정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새로운 도시의 큰 사원’으로 325년 건축을 시작했던 성 소피아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명에 따라 532년 ~ 537년에 다시 크게 개축되어 이후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정복을 당해 이슬람 사원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성당 주변을 둘러싸는 첨탑이 세워지고, 벽은 회칠로 덧씌워져 이슬람교 코란의 금문자와 문양들로 채워져 있다. 회칠 속으로 성모 마리아의 모자이크 등은 모두 사라버렸다가 1930년대부터 아타튀르크에 의해 박물관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도 복원작업이 진행되어 두꺼운 회칠이 벗겨지면서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비잔틴시대의 화려한 흔적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기독교 이슬람의 장식물이 공존하고 있어 동·서와 기독교·이슬람 문화의 공존을 볼 수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비잔틴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성 소피아 성당】



【그랜드 바자】

3. 특이사항 및 연수후기

○ 특이사항

- 동서양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스탄불로 대표되는 대도시는 유럽의 어느 도시 못지않으며 내륙의 지방 소도시들은 이슬

람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그만큼 수많은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

→ 비단 이스탄불뿐 아니라 터키를 전체적으로 둘러보아도 동과 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국가임

-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는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보수만 실시

- 이스탄불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어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 주택, 실업, 교통문제 등 도시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 도시 자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

→ 우리나라의 경우도 급속한 현대화의 영향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해결해야 하나 “불편함과 다름”도 그 자체로 나라와 지역을 대변하는 문화라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모습은 지키고 원형을 보존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여 현재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시내에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화려한 네온조명 간판과 돌출 간판, 특히 현수막 등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신 시내의 도로와 고속도로를 가리지 않고 도로변에 수많은 광고탑 존재

- 연수지역 거의 대부분(터키 전역)의 주택과 상가, 아파트, 호텔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건물을 막론하고 대부분 지붕에 태양열 발전을 위한 집열판을 설치하여 전기 생산 및 온수 이용

- 우리나라도 집이나 관공서 등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볼 수 있으나 터키처럼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지는 않음,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 절약의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보급이 필요함
- 터키의 관광 정책상 현지 관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터키인 가이드가 동행해야 하며 유적지 입장시 티켓 발급 등 모든 절차를 가이드가 수행
- 가이드의 학력은 의외로 높은 편으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터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 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서는 혐오시설 중 하나인 공동묘지 등이 이슬람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도시 내 도로변의 작은 동산 등에 위치
- 종교적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말 할 수는 없지만 당장은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여 이러한 시설을 터키처럼 우리 생활주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터키 국내선 항공기 이용할 때 미리 예약을 하면 저렴하게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음
-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는 곳 모두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되는 모습, 대부분 유료화장실
- 대부분의 관광지의 입장권을 전산 처리하여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과거의 역사적 유물을 이용하면서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가미
-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관광 유적지에도 전산관리를 위한

설치가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하기에는 예산 등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개발 공급하여 한 개의 입장권 등을 구입하면 전국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연수 후기

국외연수의 목적은 다른 문화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비교하고 나를 돌아보고 변화 발전하기 위함이며 결국은 우리를 변화·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상호간의 올바른 비교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며칠간의 일정으로 터키에 대해 모두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 얘기한다면, 짧은 일정에서 보고 들은 것들 일지라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먼저 문화유적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IT기반을 만들면 어떨까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터키는 현지 가이드가 모든 곳을 동행하며 가이드 없이는 관광이 불가능하다. 우리와 터키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에게도 다양한 역사 유적과 관광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아는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앞으로 찾아올 이들을 현실적으로 모두 소화할 수 없으니 한 가지 편의요소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중화되고 우리 일상

에서 떼려야 뗄 수없는 필수기기가 된 만큼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적에 대한 다양한 언어의 해설이 가미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은 어떨까?

- 터키의 경우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여 지금 터키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문화유산이 남은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이름모를 개인들의 피와 땀으로 현재의 터키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금 이 순간, 평범한 일상도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군민 개개인 모두가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015. 3. 20.(금) ~ 28.(토)까지 7박 9일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일정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고 있는 터키를 다녀왔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이라 했던가 터키의 한국인 가이드의 재치 있고 해박한 설명과 거리거리의 이국적인 풍경과 새로운 배움에 눈과 귀는 즐거웠지만, 막상 다녀오니 터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지 않았음이 조금 후회도 되고, 정해진 국외연수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일정 내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친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다. 특히 내국인과의 직접적인 언어 소통이 곤란하여 모든 것을 가이드에게 의지하게 되다 보니 보다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연수가 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다. 하지만 이

번 국외연수 참가자 모두는 이동거리가 2,000km가 넘는 피곤한 일정에도 이동 중에는 가이드의 설명을 경청하고 차 창밖이라도 한번 더 바라보며 한 가지라도 더 보고 배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비록 국외연수의 성과가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라는 어느 여행가의 말처럼 새로운 시야와 안목으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이번 국외연수의 경험들이 작은 씨앗으로 우리에게 남아 멀지 않은 미래에 장성에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기대해 본다.

□ 터키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

김○○ 의원

터키는 형제의 나라이다.

터키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2002년 월드컵 3,4위전은 월드컵 사상 가장 아름다운 3,4위전으로 남는다.

우리는 돌궐족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될까?

북방민족, 침입자, 오랑캐 등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터키가 왜 우리의 형제 국인지 올바르게 알고, 고조선 혹은 그 이전부터 북방민족과의 관계 등을 재정립하고 역사를 새로 배워야 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공부하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다.

오스만 튀르크의 후예들 DNA가 선천적으로 전사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터키는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광활한 대지와 지하자원, 강력한 왕권과 신권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민족성으로 세계를 그들의 발아래 무릎 꿇릴 수 있었던 그들만의 특성이 부러움을 느끼면서 터키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저, 터키는 한국 전쟁에서 약 1만 5천여 명의 전투병을 파견해서 1천여 명의 전사자와 2~3천 명의 부상자를 냈다. 그리고 터키는 한국

을 제외한 유엔군중 가장 용맹하게 싸웠고 전투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해 위급한 전시상황에서도 한국의 교육과 고아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 말에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며 앙카라에 위치한 한국 공원을 찾았다.

이곳은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신 분들의 기념탑이다. 방문시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묵념을 올리고 주변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꽂초 줍는 환경 청소를 하였다. 가이드는 이곳에 수많은 한국 관광객이 다녀갔지만 주변 청소를 하는 분도 없었는데 장성균의회 의원님들이 손수 주변 청소를 하는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동양과 서양이 잘 어우러진 나라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14곳이 등재된 나라

테린구유는 지하도시로 유명하다. 1700년전에 지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2만 명이 수용 가능한, 종교의 박해를 저항해서 만든 지하 도시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이 지하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은 전체를 알려 줄 수 있으며 가이드 안내에 따라 지하도시를 탐방했는데 키 작은 사람일지라도 허리를 숙여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지하 동굴의 천정은 낮고 좁았다.

미로와 같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지하 동굴은

끝이 없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지하에다 수 십킬로미터에 달하는 도시를 건설해서 살아 왔단 말인가? 아직도 이 지하도시는 계속 발굴 중이고 관광객들이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출입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등불을 거는 곳, 가축을 메어두는 곳, 곡식을 보관하는 곳, 물을 끌어 올리는 곳, 밖의 날씨를 확인하는 곳,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방, 교회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석회가 눈처럼 보이면서 눈 덮인 산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파묵칼레는 목화가 유명해서 목화의 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다. 파묵칼레에 위치하고 있는 고대 로마시대 때의 유명한 온천인 세계 문화유산의 히에라폴리스는 놀라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유적물이 잘 보여준 그 시대는 상상 이상이었고 온천수가 흐르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석회봉에서 노천 족욕 체험을 하였다. 또한, 파묵칼레의 노천 온천은 마치 용암의 석회질이 눈이 내려온 것처럼 하얗게 보이고 그 안의 물은 광물질이 들어 있어서 파랗게 보이는 환상적인 미네랄 온천수로 황제까지 요양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져 온다. 파묵칼레가 뿜어대는 아름다움은 여전하다.

카파토키아는 바위에 구멍을 뚫고 교회와 수도원을 만들어 수녀와 수도자가 기거를 했던 곳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파묵칼레 데일리지시 자연유산 문화관리 정책과를 방문하였다. 구청 사무실에서 문화관광과 담당 과장의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을 가졌다. 문화유산 어떻게 관리 보존하고 있는가? 데일리지시의 유적물은 복원보다 발견한 그대로 보존하고 예산은 1,000만 달러이며 지역축제는 연 6회(1회 개최시 7일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그리고 데일리지시는 1일 500명 ~ 1,500명 방문객이 다녀가며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관광객 서비스 차원 대책은 특별히 서비스 차원이 없고 관광객이 편안하게 숙식하고 음식을 먹고 간다.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후 어떤 이익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으며 이미지만 부각시켜 준다는 설명이다.

우리 장성 필암서원도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중이다. 필암서원은 터키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에 비하면 정말로 작아 보이지만 필암서원이 꼭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길 바란다.

터키 관광 홍보는 따로 하지 않는다.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이 다녀가서 입소문으로 관광이 이루어진다. 특히 한국은 초기에는 배낭족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다음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 터 에페소의 로마시대의 유적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셀수스 도서관, 히드리아누스 신전, 아고라, 교회터, 오데온 원형극장, 시장터 등 이곳은 지진과 해풍으로 도시가 흩으로 묻혀 버린 곳인데 현재 복원중이며, 로마시대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에페소엔 셀수스도서관이 너무나 유명했다고 전한다. 그들의 책은 어린 양피로 만든 책을 1만2천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침략자들의 방화로 지금은 소실되고 없다고 한다.그리스나 터키는 원형 극장을 만들었는데 그리스는 원형극장의 전면 단상 뒤가 터져 있어서 자연과 호흡하는 면을 보이는가 하면 로마시대의 원형극장들은 중앙부 무대 뒤쪽을 높이 올려 공연의 집중을 기했다. 이유인즉 늘 적들의 침략이 많던 로마는 공연을 할 시간만이라도 편안하게 공연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의 뒷면을 올려 집중을 하게 하였다 한다.

에페소의 원형극장은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대형 극장으로 1세기경의 원형극장은 그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으며 너무나 발전된 고대 로마시대의 모습은 우리나라를 한없이 작아보이게 만든 곳이었다.

이스탄불이 위치한 지중해의 베르사이유라 불리우는 돌마바체 궁전, 푸른 타일이 아름다운 블루모스크(술탄아흐멧 1세 자미), 미로처럼 얽힌 터키 토산물 시장 그랜드 바자르 견학으로 터키 연수를 마쳤다.

□ 연수에서 느낀 소감은?

긴 여정으로 힘들었지만 터키 문화를 배우며 우리 장성도 전통과 문

화를 좀 더 보존하고 이를 잘 알리는 정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터키의 경우 외국관광객이 오면 터키인 가이드가 의무적으로 같이 동행한다. 이런 관광정책으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요즘 한국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는 만큼 우리 장성도 이런 터키의 관광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될 것이다. 많은 효과가 있을 듯하다.